

효봉법어집

문도회 엮음

미발굴 서간·행장 자세히 수록

마지막으로 한말을 칭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군더더기 소리 안할란다'며 '내가 말한 모든 법은/그가 다 군더더기/오늘 일을 묻는/가담이 천강(千江)에 비치니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떠난 법신으로 다시 돌아왔다.



료를 추가했다.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효봉스님의 가르침을 생생히 접할 수 있음은 물론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과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한 효봉연구에도 자료적 가치가 크다.

〈불일출판사, 1만5천원〉

저작권법 내년 7월 시행... 원작료 '비상'

불서출판계 '발만 등등'

내년부터는 57년 이후에 발행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소급 적용, 보호된다. 문체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작비등 비용 15%이상 추가부담 학술서 90% 日서적 번역의존 상태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교학술서 출판사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불교학술서의 경우 거의 90% 가깝게 일본출판물의 번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작료를 지불해야 한다. 원작료는 미국 일본의 경우 대체로 책 정가의 7%선이다. 여기에 계약교섭비용, 중개인비용을 더할 경우 현재의 제작비보다 적어도 15% 정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출판계는 보고 있다.

번역출판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자연스럽게 국내발자에 눈을 돌릴 것이고, 이에 따라 불교학 연구와 성과물 생산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책방 여시아문 개관 1주년 맞이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 1926년 회동서관에서 발행된 초판본부터 지난 5월 간행된 문학과출판사까지 모두 85종의 '님의 침묵'이 3일까지 전시된다.

성철스님 법어집 인기 '꾸준'

열반 2주기 '백일 법문' 수행지침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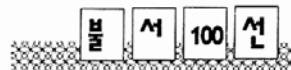
'불교계의 큰별 지다.' 지난 93년 11월 4일 한 일간신문은 성철스님의 열반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애석함을 표했다. 성철스님이 직접 목록을 작성, 감수까지 맡아 펴낸 선림교경총서 37권과 법어집 11권이 스님의 체취와 구도열정을 전해준다.

법어집 가운데 〈영원한 자유〉와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스타디오편로 기록되며 스님 열반 이후 더욱 널리 읽히고 있다. 특히 67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1백일 동안 한 법문을 정리하여 두 권으로 엮은 〈백일법문〉은 수행자와 불자들의 귀중한 지침으로 꼽힌다.



만해스님의 시집<님의 침묵>이 프랑스로의 한 신부에 의해 프랑스어로 번역돼 곧 출간된다. 번역자는 파리의방전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와있는 매시니 피에르 신부(사진, 한국명 매기식).

명사추천



함께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는 부처가 설한 '없음'과 '비어있음'의 사상을 극도로 축약한 경전인 '금강경'을 여러 조차스님들이 설명한 것으로 조선 초기의 고승 함해가 1417년에 펴낸 〈금강경 오가해설의〉를 일컫는다. 그것은 금강경을 가지고 노는 듯한 천진스러움을 보이기도 하고, 금강경을 더 자세하게 뜯어보게 하며, 금강경이란 소재를 갖고 여러 가지로 형상을 지어보이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하 석 (서인)

행간마다 상징성 풍부·논리치밀 자투리시간에 펴보는 '주머니 책'

치밀한 논리가 있고, 번득이는 선기가 있으며, 시적인 흥취도 있다. 그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흡사 관현악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제각각의 약기들이 울리는 현묘한 소리들이 모여 큰 화음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 말이다. 내가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금강경〉은 그 부피가 작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 읽곤 했다. 그 후 이 경전에 대한 한 글썽자들을 찾아 읽으면서 〈금강경오가해〉가 자연스럽게 내 손에 닿았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구입문의: (02)737-0695

책방 여시아문

'님의 침묵' 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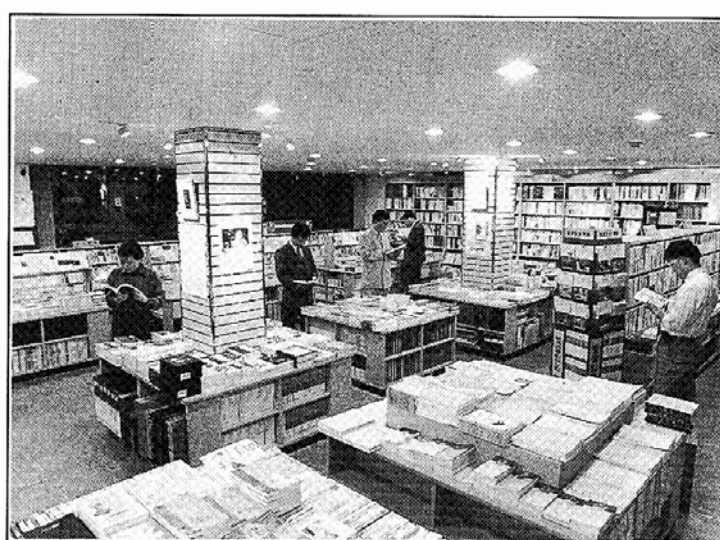
'님의 침묵'은 1926년 초판 발행 이래 70여년간 82종의 시집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님의 침묵' 이야말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정서의 근간임을 나타내줍니다.

간행역사에 따라 '님의 침묵' 참뜻 왜곡·굴절

특히 26년과 34년 등 일제시대에 간행된 두 권의 시집에서 10년 단위로 시대별 시집을 검토해 보면, 근·현대 문법표기의 문제와 거둬지는 간행에 따라 '님의 침묵'의 참뜻이 왜곡·굴절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책방 여시아문 개관 1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

결실의 계절 가을,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은 각각 창간과 개관 1주년을 맞아 만해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 이 가을의 풍요로움에 그 향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만해사상연구회(회장-전보삼)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92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님의 침묵' 초판에서부터 최근 1995년 5월 16일 간행된 '님의 침묵'(문학과 현실사)까지 총 82종의 시집이 전시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그 불꽃같은 민족애에 흠뻑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님'과 '침묵' 만해 스님 문학의 대표적 정신

시집 제목이 줄기차게 '님의 침묵'으로(80% 이상) 간행된 것은 만해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님'과 '침묵'이란 것이 면면히 인식되어 왔음을 입증합니다.

- 전시일정 : 10월 20일 ~ 11월 3일
장 소 : 책방 여시아문
전시판본 : 1926년에서 1995년까지 총 82종
기타 전시물 : 만해스님 영정·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님의 침묵' 전문

